

사상교양의 무기로서의 군중예술작품

김 성 호

예술을 대중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화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과 위훈에 불려일으키며 온 사회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했던 시기 군중문화예술의 본보기로 되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발기하시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온 사회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군중문화예술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군중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요구로부터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대중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군중예술작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선전은 감화력이 크기때문에 대중을 교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술선전의 위력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9권 159페이지)

군중예술작품은 대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매우 위력한 우리 당 사상사업의 힘 있는 무기이고 수단이다.

군중예술작품의 우월성은 우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을 즉시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대중교양에 제때에 구현하게 할수 있는 시기성에 있다.

군중예술작품의 우월성은 또한 모든것이 갖추어진 극장만이 아니라 포연이 날리는 전호가, 천리행군의 실참, 불꽃날리는 공장구내, 농장포전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대중교양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기동성과 함께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전투적인 호소성에 있다.

군중예술작품은 평범한 생활속에 있는 자그마한 소재를 놓고 심오한것을 펼쳐보이면 서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생활적인 언어형상으로 일관되어있고 예술형상과 전투적호소

성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결합되는것으로 하여 대중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데서 큰 효력을 나타낸다. 더우기 군중예술작품은 대중자신이 직접적인 창조자, 담당자가 되어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열정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는것만큼 그 잠재력과 생활력이 대단히 큰 우리 당 선전선동사업의 힘 있는 수단으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의 우월성은 또한 경제과업수행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경험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을 비롯한 낡고 뒤떨어진 사상관점과 사업태도를 직선적으로 비판하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크다는데 있다.

군중예술작품은 대중이 다 좋아할뿐아니라 이해하기도 쉬운 예술형식이므로 사람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적현상을 비판하는데서 매우 실리가 높다.

이러한 군중예술작품은 한마디로 말하여 광범한 대중이 그 창조와 보급활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며 무대우에서 형상으로 재현될것을 전제로 하여 창작되는 구성이 간결하고 규모가 작으며 형식이 단순한 예술작품이다.

군중예술작품은 우선 광범한 대중이 그 창조와 보급활동에 직접 참가할수 있는 예술작품이다.

군중문화예술활동자체가 전문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이 직접 참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성격의 예술활동이다.

군중문화예술의 창조자도 그 향유자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인것만큼 군중문화예술활동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군중예술작품창작사업에서도 역시 그 주인은 광범한 대중자신으로 되는것이다.

군중예술작품은 또한 무대우에서 예술형상으로 펼쳐질것을 전제로 하여 창작되는 예술작품이다.

다시말해서 군중예술작품은 작가에 의하여 대본이 완성된 다음 무대우에서 출연자들의 예술형상으로 재창조될것을 전제로 한다.

재담, 촌극, 대화시나 시이야기, 노래이야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군중예술작품들은 그 목적자체가 출연자들의 무대적형상을 위한 문학적인 전제를 마련하는데 있다.

군중예술작품은 또한 구성이 간결하고 규모가 작으며 형식이 단순한 예술작품이다.

군중예술작품은 자그마한 생활소재를 놓고 전투적이며 호소적인 짧은 형식속에서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정통을 찌르듯 당정책의 진수를 해설선전하는 문학형태인것만큼 소설이나 영화문학과 같은 제 형태들에서처럼 비교적 긴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섬광과도 같이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는 예리한 단면을 통하여 형상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군중예술작품은 구성이 간결하고 규모가 작으며 형식이 단순한 문학형태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하게 된다.

군중예술작품은 무대우에서만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낼수 있으며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무대우에서 출연자들에 의하여 형상으로 재현될수 없는 작품은 아무리 문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인식교양적가치가 크다고 하여도 군중예술작품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런데로부터 군중예술작품은 일련의 무대적특성을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행동성이다.

군중예술작품에서는 인간의 투쟁과 생활을 출연자의 행동으로 펼쳐보일수 있도록 묘사한다.

군중예술작품은 지면에 옮기면 끝나는 이여의 문학형태와는 달리 무대에서 출연자의 행동으로 형상될것을 전제로 하여 창작된다는 점에서 희곡과 류사하다.

군중예술작품에서 대본에 반영되는 모든것은 출연자의 연기를 통해 관중들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대본창작은 언제나 무대를 통하여 출연자의 연기를 내다보며 진행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군중예술작품은 행동성을 가지게 된다.

행동성이란 인간과 생활을 출연자의 연기를 통하여 실지 살아움직이는것처럼 보여주는 특성을 말한다.

선동이야기 《자투리》의 한 대목을 실례로 보자.

△모두 녀2가 가리키는 쪽을 본다. 남2 코노래를 부르며 나무함통을 밀고나온다.

모두 엉?

남1 (남2에게 다가가 눈에 손가락을 대고 혼든다.) 자네 이게 보이나?

남2 예? 아니 반장동지!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해보이지 않습니까?

남1 (녀1에게) 정신은 푹푹해보이누만.

녀1 예그, 비키시우.(남2에게 다가가) 야— 앗!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형상) 앗!

남2 아, 그러다 눈을 찌르겠습니다.

녀1 정신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남1 그렇게 말이요.

남2 아니, 갑자기 왜들 그러십니까?

남1 오, 한가지 물어보자구. 자네 요즘 왜 자투리나무들을 모아들이나?

남2 반장동지, 자투리나무들도 다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 아닙니까?

모두 뭐?

남2 그런데 옥심동무랑은 그 아까운 나무들을 망탕 버리기에...

녀2 아니, 아무리 아까워도 그런 자투리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남2 뭘하느냐구? 그럼 한번 보겠소?

녀2 보자요.

남2 좋소.(나무함통의 앞뚜껑을 열어보이며) 자, 이 자투리나무가 뭐가 되는지 잘 보오.(위생절, 꼬니판, 장기관 등을 요술사처럼 꺼낸다.) 어땡소?

모두 야—

남2 자 이젠 이 나무함통이 뭐가 되는지 잘 보십시오.(나무함통을 제끼면 침대가 된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작가의 의도는 출연자들의 행동에 의하여 형상적으로 꽃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군중예술작품에서는 오직 출연자들의 행동으로써 생활을 펼쳐보여준다. 따라서

군중예술작품에 켜여지는 모든 언어들은 곧 출연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는 인간과 그 생활을 시각적으로 조형화하여 묘사한다.

군중예술작품에서는 모든것이 관중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수 있게 켜여진다.

따라서 군중예술작품에서는 관중들이 직접 볼수 있는 직관적인 묘사만을 허용하게 된다.

군중예술작품의 무대적특성은 둘째로, 무대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형상에서 시공간적제약을 많이 받는것이다.

이여의 문학형태들에서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볼수 없는것도 여러가지 형상수단을 통하여 자유자재로 묘사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의 꿈장면, 환상장면 같은것도 얼마든지 그려낸다.

영화에서도 화면이라는 독특한 수단을 리용하여 모든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게 형상한다.

하지만 무대우에서는 소설이나 영화에서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생활은 물론 현실에 존재하는 생활이라 해도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군중예술작품이 무대에서 시공간적제약을 받는 사정과 관련된다.

영화에서는 비약과 생략, 축소와 확대, 병행과 대조, 회상과 환상 등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활용하면서 시공간의 깊이와 립체성, 조형적직관성을 실현한다.

그러나 군중예술작품은 무대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시공간적으로 심한 제약을 받는것으로 하여 생활을 영화에서처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다.

창작가들은 군중예술작품의 이러한 무대적특성을 잘 알고 작품창작에 앞서 항상 무대를 생각하여야 하며 시공간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여러가지 생활들을 펼치는 경우에 관중들이 보고 쉽게 리해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형상적으로 잘 전개해주어야 한다.

재담 《우리의 기적》의 한 대목을 실례로 들어보자.

남2 아니지, 조국해방은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력사적사변이지.

녀 옳아요. 그래서 해방전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두메산골마을에선 할아버지가 곱새로 되었는데...

남1, 남2 아니, 할아버지가 왜 곱새로 돼?

녀 왜 곱새로 되였는지 그때 그 마을에 가서 보지요.

남1, 남2 좋습니다

△음악속에 극중으로.

녀 (손녀가 되여) 할아버지, 흑흑...

남1 (할아버지가 되여) 아니, 너 치마는 왜 찢어졌니?

녀 왜놈손사가 일본옷을 입지 않고 조선말을 한다면서... 흑...

남1 어이구— 저 악독한 왜놈들이 조선을 영영 죽이려고 하누나. 저놈들에게 날벼락이나 내려다오.

남2 할아버지, 빌겠으면 하늘에 빌지 말고 백두산에 빌어야 해요.

남1, 녀 백두산에?

우의 실례는 시공간적으로 급격히 비약하여 전개되고있는 이야기이지만 출연자들의 대사와 연기를 통하여 관중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형상적으로 전개되어있다.

그러면 우리 당 사상사업의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군중예술작품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시기성, 기동성, 호소성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시기성, 기동성, 호소성은 군중예술작품의 고유한 속성이며 그 존재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다시말해서 시기성, 기동성, 호소성을 떠나 군중예술작품의 존재자체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군중예술작품의 시기성이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시기별로 내려오는 당정책들을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안에 창작에 구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시기성을 보장하는것은 군중예술작품창작의 첫 공정으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이 시기성을 띠게 되는것은 당정책으로 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는것을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하고있는 군중예술작품의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군중예술작품창작의 목적자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현행당정책의 기본사상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해설침투시키고 그 불패의 위력과 정당성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자는데 있는것만큼 작품창작에서 시기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시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을 받아안자마자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에 최고의 수준에서 작품을 완성하여 대중에게 그 진수를 해설선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시기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당정책선전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그러자면 작가자신이 우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을 그 누구보다도 제일먼저 받아들이고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대중을 당정책으로 교양하자면 작가자신부터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할뿐아니라 당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

작가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당의 사상과 방침을 해설선전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며 그 진수를 예술적형상으로 원만히 꽃피울수 있는것이다.

창작가들이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시기성을 보장하자면 또한 높은 창작실무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꽃피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의도 없다.

군중예술작품은 다른 예술작품과 달리 창작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더우기 군중예술작품은 창작되자마자 출연자들의 화술형상을 통해서 무대우에 옮겨져야 하는것만큼 작가가 빠른 시간안에 작품을 창작하여 무대형상에 넘기는것이 중요하다.

창작가가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심과 함께 높은 창작실무능력을 소유하고있을

때에만 작품을 빠른 시일내에 성과적으로 창작완성할수 있으며 군중예술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시기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군중예술작품에서는 시기성과 함께 기동성도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군중예술작품이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자면 작품창작에서 기동성을 보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중예술작품의 기동성은 정황이나 시간, 장소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말한다.

군중예술작품의 기동성을 떠나 도대체 그것의 가치와 생명력에 대하여 논의할 여지가 없다.

작품창작에서 기동성을 보장하는것은 군중예술작품이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위력한 수단이라는 사정으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때문에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기동성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창작실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교양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기동성을 보장하자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화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화선식으로 한다는것은 예술선동공연을 그 어떤 정황이나 장소, 환경속에서도 진행할수 있게 예술작품의 구성을 간결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자두자 대본을 쓰고 자신들이 직접 무대우에 출연하여 대중을 투쟁으로 부르던 항일유격대원들의 락천적인 투쟁기풍과 불비속에서도 뺨파리를 치고 북을 울리며 승리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리던 전화의 영웅들이 발휘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기풍은 오늘 우리 창작가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된다.

작품창작에서 기동성을 확고히 보장할 때에만 우리의 군중예술작품이 당사상사업의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는 시기성, 기동성과 함께 호소성도 중요한 특성을 이루며 군중예술작품의 호소성은 작품의 혁명성과 전투성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중요한 징표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의 호소성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그들을 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특성을 말한다.

군중예술작품이 호소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군중예술작품의 임무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적요구이다.

작품의 전투적호소성은 결코 출연자의 목소리나 음향의 세기가 아니라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는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에 있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호소성을 보장하자면 우선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심장은 저절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다.

대중이 작품에 반영된 생활을 통해 커다란 충격을 받고 당정책관철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충동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것이 호소성이며 바로 여기에 군중예술작품의 위력과 참다운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것은 군중예술작품의 호

소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군중예술작품창작에서 호소성을 보장하자면 또한 작품을 철저히 선동위주의 작품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군중예술작품의 호소성은 선동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군중예술작품의 형식을 선동위주로 하는것은 작품의 호소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의 창작가들은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투쟁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군중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조국의 모습을 일신시켜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혁명의 북소리, 예술선동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려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군중예술작품, 전투적 호소성